



VACHERON CONSTANTIN
GENÈVE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 Les Collectionneurs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전문가들이 꼼꼼한 절차에 따라 공급받아 복원 및 정품 인증 과정을 거친 빈티지 시계 셀렉션입니다.
-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웹사이트에서 셀렉션을 감상하고, 부티크 방문을 예약하고, 타임피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관심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미국, 상하이, 두바이에서 새로운 셀렉션을 선보입니다.

2023년 10월 17일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의 일부 선정된 부티크에서 Les Collectionneurs 시계를 구매할 수 있으며, 최초로 바쉐론 콘스탄틴 웹사이트에서도 시계를 둘러보고 관련 부티크에 더욱 손쉽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타임피스의 디테일을 미리 확인하고 부티크에 방문하겠다는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미국, 상하이, 두바이에서 새로운 만남이 펼쳐집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08년부터 메종의 20세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Les Collectionneurs를 통해 빈티지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전문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빈티지 타임피스 셀렉션으로 구성된 Les Collectionneurs 컬렉션을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빈티지 시계에 관심 있으신 고객은 바쉐론 콘스탄틴 전문가들이 발견한 새로운 시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특별한 제안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방문객들은 다른 빈티지 타임피스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여 메종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빈티지 모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지만,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에서 예약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가들은 사이트에서 관심 제품을 등록한 다음 원하는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 미국, 상하이, 두바이 내 가까운 부티크 방문 예약을 통해 제품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계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특별한 아카이브는 1755년에 기록된 첫 번째 문서인 장-마크 바쉐론(Jean-Marc Vacheron)이 서명한 견습생 계약을 시작으로 3세기를 아우르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420m에 달하는 판매 및 제작 명부, 서신, 기타 도상학적 서류에는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600여 피스에 이르는 시계학적 아이템으로 풍성한 아카이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종의 전문가는 이처럼 풍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1775년부터 메종의 워크샵에서 제작한 모든 타임피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타임피스 인수 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바로 케이스와 무브먼트의 시리얼번호를 기록하는 것이며, 이는 바쉐론 콘스탄틴 아카이브 내에 보관되어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이후 기술적 진단을 거쳐 모델이 단순한 클리닝 작업이 필요한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나 누락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공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식된 다이얼, 누락된 핸즈, 틱니가 많은 기어, 곳곳에 패인 자국이 있는 배럴 스프링 등을 모두 해결해야만 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워치메이커들은 시대별로 모델을 다루는 세 곳의 워크샵 안에서 매종 설립 이후 생산된 어떤 시계든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임피스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거 워치메이커의 작업을 존중하며 복원을 진행한다는 일관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무브먼트 부품을 동일하게 재현해야 할 경우, 당시 부품 재고와 과거의 여러 기계 모두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피스에 수행된 주된 작업은 고객에게 전달되는 책자에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다양한 복원 단계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정품 인증 및 유지 보수 기법을 적용하는 역사적인 단계를 완료하고 나면, 시계와 함께 정품 인증서, 2년의 보증 혜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서가 제공되어 이후 타임피스의 수명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를 위한 질문

이번이 Les Collectionneurs의 새로운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쉐론 콘스탄틴은 2008년부터 Les Collectionneurs 셀렉션을 통해 이 제품 라인을 '제도화'하며 충분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리잡은 Les Collectionneurs는 이제는 메종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컬렉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수집가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약 15년 전부터 앤틱 타임피스를 연구하고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애호가에 의해, 애호가를 위해 존재하는 시계 매뉴팩처인 만큼, 특히 역사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모든 기량을 발휘하여 진지하면서도 사려 깊고 매력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빈티지 타임피스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기밀에 가까운 고객 미팅의 형식의 이벤트로 선보여져 왔습니다. 빈티지 타임피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열정 넘치는 애호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이러한 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메종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이들 타임피스와 그 특성, 그리고 이들을 구매할 수 있는 부티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제품으로 등록하고 메종 전문가를 만나는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를 위한 질문

모델 선정 시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지나치게 흔하지 않은 모델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최근에 출시되었거나, 너무 오래 전에 출시된 모델도 피해야 했습니다. 희소성이 극도로 높은 타임피스의 경우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 Collectionneurs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가격대를 상회하는 경매에 부처집니다. 복원이 필요한 광범위한 범위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제품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전에 출시된 제품은 주로 전문가들을 겨냥한 제품이고, 최근에 출시된 시계는 빈티지 시계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수집가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큼 특별한 매력을 지닌 타임피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력이란 독창적인 디스플레이, 탁월한 칼리버,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시계, 예술 공예 기법이 돋보이는 모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련성을 평가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만큼 어떤 조합이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메종의 헤리티지 전문가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타임피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네트워크를 보유해야 합니다. 메종에서 인수한 시계는 매뉴팩처 내에 잘 정립된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습니다.

올 가을 선보이는 제품 라인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양하고 풍성한 셀렉션에는 손목시계뿐 아니라 포켓 워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트라-씬 무브먼트나 정교한 칼리버, 독창적인 디스플레이도 포함되죠. 이에 따라 수집가들은 커다란 인기를 누렸던 1940년대 크로노그래프뿐 아니라 예술 공예 기법이 적용된 시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타임피스, 탁월한 무브먼트가 장착된 쓰리핸드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 셀렉션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 및 여성 시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두 부분 모두에서 오랜 시간 바쉐론 콘스탄틴이 선보여 온 풍부한 제품 라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스타일 및 트렌드와 더불어 기계식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도 늘 독창적인 선구자로 활약해 왔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EVE

AUTOMATIC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시계 셀렉션, 상하이

1. 점핑 아워와 미스터리 미닛, 실버톤 기요세 다이얼을 장착한 18K 옐로 골드 시계(Ref. 43040 - 1996년)

20세기 전반부에 바쉐론 콘스탄틴은 점핑 아워와 미스터리 미닛을 결합한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소개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뉴팩처는 이 같은 유형의 디스플레이를 지극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레퍼런스 43040을 통해 12시 방향의 시간 표시창, 기요세 다이얼 슬롯을 통해 표시되는 오닉스 미닛 포인터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두께가 단 7mm에 불과한 직경 36mm의 슬림한 옐로 골드 케이스에는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1120 HS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120 베이스 칼리버는 196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당시 이는 동세대 중 가장 얇은 2.45mm 두께로 완성되었습니다. 울트라-씬 무브먼트와 독창적이고 모험심 넘치는 미학이 만나 탁월한 정확성이 돋보이는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2. 실버톤 다이얼을 장착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바이컴팩스 크로노그래프 시계(Ref. 4178 - 1941년)
손목시계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크로노메트리(정밀한 타임키퍼)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실용성과 기능성이 돋보이는 모델을 통해 20세기 전반부 동안 등장했던 측정 기능이 탑재된 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들 모델 중 하나인 레퍼런스 4178은 메종의 헤리티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임피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40년에 처음 출시된 이 크로노그래프는 큰 성공을 거두며 1964년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독특한 부채꼴형 러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임피스는 완벽한 대칭과 균형 잡힌 비율의 표본입니다. 매뉴얼 와인딩 컬럼 휠 칼리버 434가 장착된 옐로 골드 버전은 수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템입니다.

3. 사파이어 다이얼을 장착한 950 플래티넘 소재의 오픈워크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Ref. 43032 - 1995년)

전자시계가 급부상한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 기계식 위치메이킹은 전통 컴플리케이션 부문의 다양한 제품과 함께 다시금 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1983년에는 울트라-씬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 그 이듬해에는 직경 36mm, 두께 7.5mm의 오픈워크 버전인 레퍼런스 4303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날짜 모듈을 갖춘 명성 높은 셀프 와인딩 칼리버로 구동되어 요일, 날짜, 4년 주기의 윤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월, 월령, 문 페이즈가 표시되며, 전체 두께는 4.05mm에 불과합니다. 무브먼트는 전체가 스텝레톤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아름다운 장식이 돋보입니다. 메종의 세계에서 흔히 만나보기 어려운 퍼페추얼 캘린더는 기계식 위치메이킹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JAN 3
APR 5
OCT 7
JUL 9
APR 11
JUL 13
OCT 15
JAN 17
APR 19
JUL 21
OCT 23
JAN 25
APR 27
JUL 29
OCT 31

25
27
29
15
17
19
21
23
25
27
29
15
17
19
21
23
25
27
29

SUN 1
MON 2
TUE 3
WED 4
THU 5
FRI 6
SAT 7
SUN 8
MON 9
TUE 10
WED 11
THU 12
FRI 13
SAT 14
SUN 15

AUTOMATIC
VACHERON CONSTANTIN
GENEVE

SWISS MADE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시계 셀렉션, 미국

1.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 기법을 적용한 화이트 골드 다이얼이 장착된 950 플래티넘 소재의 메르카토르[®] 바이 레트로그레이드 시계(Ref. 43050 - 1995년)

플랑드르 출신의 수학자 겸 지리학자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Gerhard Mercator) 서거 400주기를 기념하는 의미로 바쉐론 콘스탄틴이 1994년에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다이얼 위에 다양한 지도를 장식한 시계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각각의 화이트 골드 다이얼은 모두 수공 인그레이빙을 거친 후 에나멜링 기법이 적용됩니다. 1930년대 메종의 손목시계에 등장하여 큰 명성을 가져다주었던 "브하영 레흐"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이 타임피스는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칼리버 1120으로 구동되며, 한 쌍의 나침반 모양의 핸즈를 활용하는 바이 레트로그레이드 아워 및 미닛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에 사용된 벤치마크 무브먼트는 당시 생산된 모델 중 두께가 가장 얇았습니다. 950 플래티넘 소재의 36mm 케이스로 출시되는 이 시계는 독창적인 매력을 선사하면서도 케이스 두께가 단 8.5mm에 불과한 슬림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 문 페이지와 블랙 기요세 다이얼이 장착된 18K 핑크 골드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시계(Ref. 49005 - 1995년)

레퍼런스 49005는 무브먼트의 정교한 기술력뿐 아니라 탁월한 미학이 돋보이는 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고려했을 때 바쉐론 콘스탄틴에 있어 상징적인 성취로 손꼽히는 시계입니다. 1992년에 출시된 이 모델은 21세기 초까지 생산되었으며, 이후 Malte 컬렉션의 레퍼런스 47112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종은 핑크 골드 및 플래티넘 소재의 타임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직경 38mm, 두께 12mm의 핑크 골드 거드룬 케이스가 장착된 이 모델은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크로노그래프 및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에 문 페이지와 스몰 세컨즈를 결합한 모델로, 두께가 단 7.10mm에 불과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 1136QP로 구동됩니다. 크로노그래프와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시계 중에서도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퍼런스 49005는 특히 완벽한 가독성을 자랑하는 기능이 돋보이며, 절제된 디자인으로 한층 풍성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3. 말테 크로스 모티프가 장식된 수직 새틴 브러싱 처리 및 실버톤 다이얼이 장착된 18K 옐로 골드 시계(Ref. 6068 - 1960년)

1960년에 출시된 이 시계에는 바쉐론 콘스탄틴 울트라-씬 시계의 위대한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두께가 단 2.94mm에 불과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01이 장착되며 5개의 아라베스크 브릿지를 갖춘 매력적인 구조가 돋보입니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정밀 레귤레이터는 크로노미터 품질의 무브먼트로 분류됩니다. 1950년대 초에 등장한 이 칼리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대 매뉴얼 와인딩 모델 중 가장 탁월한 모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스몰 세컨즈를 갖춘 두께 7mm 울트라-씬 시계의 구석구석에서 말테 크로스 엠블럼이 상징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러그는 쿼터 크로스 형태로 완성되었고, 다이얼의 12시 방향에는 옐로 골드 더블 말테 크로스가 장식되어 있으며, 수평 새틴 브러싱 처리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는 "별도의" 모티프가 돋보입니다.





개요

역사적 및 기술적 전문성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시계 셀렉션, 상하이

시계 셀렉션, 미국

시계 셀렉션, 두바이

LES COLLECTIONNEURS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빈티지 타임피스

시계 셀렉션, 두바이

1. 문 페이지와 매트 바니싱 처리된 화이트 다이얼이 장착된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시계(Ref. 49005 - 1992년)

레퍼런스 49005는 무브먼트의 정교한 기술력뿐 아니라 탁월한 미학이 돋보이는 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고려했을 때 바쉐론 콘스탄틴에 있어 상징적인 성취로 손꼽히는 시계입니다. 1992년에 출시된 이 모델은 21세기 초까지 생산되었으며, 이후 Malte 컬렉션의 레퍼런스 47112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메종은 핑크 골드 및 플래티넘 소재의 타임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직경 38mm, 두께 12mm의 플래티넘 거드론 케이스가 장착된 이 버전은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크로노그래프 및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에 문 페이지와 스몰 세컨즈를 결합한 모델로, 두께가 단 7.10mm에 불과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 1136QP로 구동됩니다. 크로노그래프와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시계 중에서도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퍼런스 49005는 특히 완벽한 가독성을 자랑하는 기능이 돋보이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층 풍성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2. 스몰 세컨즈와 매트 실버톤 다이얼이 장착된 알루미늄 포켓 워치(Ref. 4348 - 1952년)

슬림한 디자인은 우아한 시계의 필수 요소로 손꼽히는 반면, 가벼운 무게는 20세기 금속공학의 진보, 그리고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합성 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탐구 주제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1937년 캐나다와 미국 회사인 알칸(Alcan) 및 알코아(Alcoa)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인 모델은 당시로서는 특별한 알루미늄 시계였습니다. 특히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39의 부품 85%에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며, 바쉐론 콘스탄틴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점에 직경 44.5mm에 무게가 단 19g에 불과한 타임피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3. 스몰 세컨즈와 실버톤 다이얼이 장착된 18K 옐로 골드 시계(Ref. 6068 - 1958년)

20세기 전반에 손목시계가 등장하면서 울트라-씬 모델은 미학을 중시하는 선택의 차원을 뛰어넘어 전문적인 기술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1952년, 메종은 2.94mm에 불과한 두께로 우아한 품격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담아낸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01이 탑재된 최초의 타임피스를 선보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생산되었던 이 무브먼트는 역대 최고의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이자 5개의 브릿지를 갖춘 구조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진귀한 디자인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품은 직경 32mm의 우아한 옐로 골드 케이스에는 쿼터 말테 크로스 형태의 러그가 장착되어 있고, 아플리케 골드 아워 마커와 차분한 스몰 세컨즈 핸드가 돋보이는 퓨어 화이트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

